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18. 두아디라 교회 상태

2013. 05. 05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아디라 교회에 지적인 교회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함께 잘 들으시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2:18~29]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도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의 위치와 편지하신 예수님의 칭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지 내용을 차례대로 이야기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답: 예, 이미 말씀을 봉독했지만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지요? 먼저 19절의 칭찬하신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은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적 성숙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칭찬 덕목이 있는데, 하나씩 살피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업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네 행위를 안다고 할 때에 “행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엘가라고 하는 단어가 행위도 되고 일도 되고 사업도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등입니다. 그러니까 에르가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지요. 사업이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위한 생산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업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씩 생각해보도록 하지요. 사업이라는 말 다음 두 번째로 나온 말이 사랑입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덕목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모습이지요.

셋째,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사랑을 먼저 말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믿음의 바탕 없고 사랑만 강조하다가보니까 “이세벨”같은 이단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사랑은 말씀 안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감성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베푸는 인간적 인정으로서의 사랑은 오히려 교회를 망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넷째, 섬김과 인내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훌륭한 태도입니다. 섬기는 일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섬김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에는 인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 현상입니다.(4절)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 상태가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칭찬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바르게 믿어야 하는 진리를 분별하느라 처음 사랑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사업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고 칭찬하신 것이지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말하면 그 시대의 끝자락에서 이루어진 개혁사업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과 권고와 상급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자세히 말하게 되겠지요.

2. 아무튼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못하지 않게 책망들을 일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답: 그렇지요. 믿음의 기초인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리의 확실한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감성과 인정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교인들의 다수가 이단을 용납하면서 교회 전체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강조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의 지식과 확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현상에 빠집니다.

3. 예, 우리가 정말 올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철저히 받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책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지요.

답: 예, 말씀을 읽어봅시다. 20절인데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의 내용은 첫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여자의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왕비입니다. 그는 시돈 왕 옛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바알 숭배자들이 되도록 한 장본입니다. 그런 존재를 용납한 것이지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여자가 나타난 것 같군요. 어떤 사람인지 기록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1) 어떤 사본에 “너의 이세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두아디라 교회 교역자의 아

내라고 주장합니다. (2) 특정 인물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인물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둘째 견해가 옳을 것 같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조합(組合)들이 많았잖아요. 그 조합에 관여하면서 교인들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세벨이지요. 그 거짓 지도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구약성경의 이세벨이란 명칭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를 교회 내에서 교회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의 확실한 진리를 잘 모르고 사랑만 주장하다가 당한 결과이지요. 교회가 분명히 이세벨을 징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은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하여 행음케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셨는데, 이것은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의 니콜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4. 예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회개하라고 하셨네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군요.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버리기 쉽지 않지요. 두아디라교회에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이 문장에 사용된 시제는 결정적인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지요. 22절은 회개하지 않은 결과를 선언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은 헬라어로 “클리네”인데, 침대, 잔치용 상, 환자용 침대 등에 다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클리네”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위한 상이나 음행하는 침상이 병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비문들에는 음행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 죽은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했는데, “그”는 이세벨이지요. 이세벨과 뜻을 같이하여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한 모든 자들이 회개치 않는다면 이세벨과 동일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환난”은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환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세벨과 같은 결과, 즉, 병상에 던져버림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목사님, 23절에도 회개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예수께서 무척 마음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는 그들에게 임할 형벌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레26:14~39)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신명기 28장을 말하지만 레위기 26장이 더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는 점증합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경고가 것처럼 점증하는 상태를 보이지요. 처음에는 침상에 던진다고 하셨고, 23절에는 상태가 더 엄중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당사자들을 병상(病床)에 던질 것이라고 하시고

나아가서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것은 그들 각 사람의 행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누군가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 실제로 음행한 자들의 자녀일 것이다. (2)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자를 뜻하는 것이다. 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경고하고 성취되었던 형벌과 일치한다. 왕상21:21에는 엘리야가 아합 집에 속한 남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하였고, 왕하9:6-37에는 예후가 엘리야의 예언을 집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세벨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형벌을 자취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라는 말은 이 편지가 특수한 상황 아래 있는 교회에 보내졌지만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말은 시7:9이나 렘11:20 등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뜻이라는 말 “네프로스”는 문자적으로 “신장”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의 총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또 마음 카르디아스는 “감정”(롬9:2)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께서 인간의 내적 생각과 사상과 감정 전체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계시를 통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아무도 결코 예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앞에 말한 그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다 자기들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6.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두아디라에서 이세벨이 큰 영향을 끼치는 중에서도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나봅니다. 그들이 견디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답: 아마 그랬겠지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시대든지 상태가 부패해갈 때에 정로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지요. 예수께서 바로 그 대표적인 경험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권고하고 상급을 약속합니다. 24,25절이 그 내용이지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 같은 그릇된 교훈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어도 사단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에 대하여서는, (1) 구원을 얻으려면 신비한 지식을 터득해야 하며 자신들만이 그러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학설이라고 하고, (2) 이세벨 자신이 “사단의 깊은 것”이란 말을 사용하였으며 마땅히 우상 숭배나, 음행, 또는 이교도들의 깊은 생활을 알아야 더 철저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둘째 설명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첫째 견해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세벨이,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을 이용하여 죄를 실제로 체험해야 은혜를 더욱 값지게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혹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다른 짐이 무엇인지 정확

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깨달은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하신 것이지요. 어쩌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내는 것이 다른 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7. 교회마다 문제를 안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이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 하시면서 권고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자비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답: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에 “네게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처음 받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랑과 믿음을 올바르게 지킨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대하여서 말한다면 네게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당시 교회를 생각하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처음에 받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리 안에 남아 있는 자들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8. 예, 목사님, 그러니까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네게 있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도 두아디라 시대에 대하여서는 분명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예, 지금까지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로 그 당시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곱 교회가 사도시대로부터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곱 시대의 교회에 대한 상징적 계시로 볼 때에는 네게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개혁자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24절)고 하신 이 남아 있는 자들은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몰랐지만, 가지고 있는 것, 곧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굳게 잡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시대로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교황권이 전권을 잡은 시대로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여 죄를 없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시대는 버가모 교회 시대가 끝나는, 교권이 정권과 연합하여 정교연합 권세가 확립되는 기초가 놓인 538년부터니까요. 이런 시대에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진리를 성경말씀에 입각하여 주장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9. 그렇군요.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약속한 상급들이 이런 상태와 관련된 상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였는데,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도록 정치적 권력을 휘둘러서 바알종교를 이스라엘 나라에 확립했습니다. 계시록에는 여자가 셋이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여자가 이세벨이고, 다음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마지막으

로 17장의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입니다. 그런데 성질상으로 17장의 음녀와 이세벨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의 일을 하는 존재지요. 그런데 이들의 교훈과 행위는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고약해졌지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구별하여 교회에 발을 부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용납하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아직도 니골라당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가 그것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선지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적은 무리가 남아서 자기가 받은 진리를 끝까지 굳게 잡았고 다수가 이세벨을 선지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사정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고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자, 다음 시대는 그것을 상속하여 이제는 이세벨을 선지자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책망하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에게 이기는 자의 상급으로 주신 것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26,27절)도 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세벨로 인하여 진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0. 역전 된다면 끝까지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세벨 무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까?

답: 그렇지요. 그래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이세벨의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버가모 시대에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교회를 높였는데, 이 시대는 이세벨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정권을 흡수하여 정교연합의 교권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앉은 것입니다. 이세벨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핍박을 받았으며,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종교적 출세를 했습니다. 시장이 되려고 해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히 통치의 철권을 휘둘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경우를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의 일을 굳게 붙잡고 정치적 교회를 향하여 회개의 기별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예수께서 네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하셨는데,(23) 이 시대에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많이 죽임을 당한 사실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다니엘 11장을 연구할 때 연관된 사실을 말했던 것 같은데, 단11:23,24에 있는 말씀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십자군 전쟁으로 교회의 자녀, 즉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십자군에 종사하면서 많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5회 십자군은 소년 십자군들로서 정말 문자적으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죽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리를 그릇되게 가르친 결과들인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위클리프이나, 얀 허스, 제롬 같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으로 교권을 향해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이세벨 교권은 이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국가를 철권으로 다스리고 왕들과 황제들을 쥐락펴락했지요. 카눗사의 굴욕이 대표적인 사건이고 인노센트 3세 같은 교황은 하늘에 태양이 하나 뿐인 것처럼 세상에 왕은 교황이 유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십자군을 동원하였고, 잡히면 종교재판으로 무서운 고문을 가했으며 무섭

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나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서나 이긴 사람들은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한 세력들이 굴복될 것이며 그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1000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엘리야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대한 상징이 되는 역사적 사건인데,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경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긴 것처럼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교권 전성시대 곧 이세벨의 전성시대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시대는 교권전성시대의 발판을 놓은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 감독이 전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칙령이 방해 없이 실시 될 수 있게 된 538년부터 교황이 나폴레옹 세력에게 잡혀간 1798년까지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교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때까지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세벨을 상징적 거짓 선지자로 제시한 예수님의 계시에 의하여 1798년까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11.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답: 새벽별은 계22:16에 의하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고 또 이 암흑이 지배하는 시대를 끝내기 위하여 신앙개혁, 종교개혁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인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 것을 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로 위클리프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짐은 지우지 않겠다고 하심으로 아직도 개혁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그것은 다음 시대로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의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중에 맞을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12.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상태와 교회의 역사적 진행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를 바르게 깨닫고 개혁으로 밝혀진 진리를 끝까지 굳게 잡아서 재림의 주님을 영광중에 맞는 무리 가운데 꼭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